

# 노형욱 장관, “안전 최우선, 가덕도신공항 속도감 있게 추진”

## - 전담부서 찾아 소통·교감 기반 신공항 건설계획 마련 강조 -

-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일, 최근 별도 업무 공간을 꾸린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을 방문하여 전담부서 신설을 축하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.
- 노 장관은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, 「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의 국회 의결(2.26) 이후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,
  - \*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(5.21), 특별법 하위 법령 정비(9.17), 가덕도신공항 건설추진단 구성(9.28)
- “사전타당성 중간보고회(10.28.)를 계기로 사업 추진이 성숙단계에 접어든 만큼 안전 최우선 가치를 토대로 속도감 있게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”가 있다고 강조했다.
  - 또한 “용역 과정에서 공항건설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소통하고, 지역사회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충분히 교감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- 아울러, “가덕도신공항이 동남권의 여객·물류 중심공항으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”을 주문했다.

2021. 11. 1.

국토교통부 대변인